

이 한장의 사진

빛 바랜 한장의 사진이 가진 기억의 량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한세대를 구분짓는 세월이 30 년인데요,
그 두 세대를 더 지난 70 년 전에 찍힌 한장의 사진이
저를 온통 붙잡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8 월 하순, 아버지의 고향에 내려갔다가
할머니로부터 70 년 전, 증조할아버지의 회갑연 사진을 받게됩니다.
묘한 감동을 받은 저는 이 귀한 사진을 가지고 올라왔고,
화질을 복원하고 보정해서 가족들에게 보내려고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미깊은 자문을 얻다.

그래서 이곳 x86osx.com 에 <옛날 사진 복원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올리게 됩니다.

<http://x86osx.com/rss.ph#2890A3>

역시 기대했던 바대로 사이트내의 고수님들께서 좋은 답변들을 주셨습니다.



The_bin

평판스캔이 요즘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평판스캔 써본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복원까지 생각하시고 하시는거면
기왕 큰마음 먹으셨으니 "드림스캔" 한번 추천합니다.

아마 그정도 받아놓고 복원을 하시던 다시 출력을 하시던 해야 원하는 출력물 정도 나올것 같습니다.

복정이 아닌 복원정도의 사진은 아주 오랜시간 천천히 해야해서 힘드실텐데 건투를 빕니다.



양호

충무로가면 드림스캔 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Scripter

윗층에 드림스캔 있어서 35미리 필름은 한번 돌려봤습니다. 사이즈는 좀 큼니다. 중형하고 상대가 되겠지만, 35미리 카메라하고는 게임이 안됩니다. 7000픽셀쯤으로 스캔받았는데 좀
모정해서 psd로 저장했는데 한장에 1기가쯤 되더라구요. -.-; 옛날사진보정은 사진관 같은데서 해주기도 하던걸요 ㅋ~

양호님, The_bin 님, Scripter 님..

그 외에도 정대원, 알콜머신, 박군, 35mm, Glenn Gould 님들이 그 분들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스크립터(Scripter)님과 이후 작업에서 매우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진을 복원 해주실 분을 구하다.

저는 자문에서 얻어진 결론대로 전문업체를 찾아 드림스캔을 했습니다.
그리고 넓고 흠집이 많은 사진의 보정을 이 사이트에 부탁했습니다.

<http://x86osx.com/rss.ph#28939A>

참으로 놀라운 점은 사이트 내의 여러분 교수님들께서 아무런 댓가없이 사진 보정작업에 자원을 했다는 점입니다.

Vino, 알콜머신님께서서는 즉석에서 올린 이미지의 수정을 선보였고, 스크립터님께서서는 난이도가 높을 거 같아서 도전욕구가 불붙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저는 vino 님, Scripter 님 두 분께 이미지를 보냈습니다.

아무런 댓가없이 작업을 의뢰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댓가를 지불하고자 했지만 두 분께서는 그것조차 원치 않았습니다.

(너무나 깊은 고마움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해야 할까요)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높은 보정작업

9월 2일 vino 님께서 먼저 완료된 작업 파일을 보냈습니다.

다른 분께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였습니다. 그 작업물의 일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원본에서 보였던 원판 사진의 갈라짐이 복원되었고, 색조에서의 안정감이 더해졌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전문인이 아니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작업하신분의 말씀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손을 대면 났수록 사진의 사실성이 사라지고 그림처럼 변해간다”였습니다.

한편, 스크립터님께서서는 장시간에 걸친 완전복원을 목표로 작업하셨습니다. 다음은 9월 9일에 보내주신 이미지의 일부입니다.



Scripter님께서 사진과 함께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회사일 하면서 또 다른일을 하는 사이에 짬내서 작업한다고 후딱후딱 끝내서 보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3,40% 정도는 복원은 시켰습니다. 찢어지고 구겨진 부분 복원하는게 가장 손이많이가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서 한창 하고 있구요, 전부 복원하면 튼 작업과 사진 리사이즈를 할겁니다.”

저에겐 3~40%가 아니고 거의 완벽해보입니다.

아무튼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 때에는 인물 중심의 복원이 마무리된 상태였고, 인물 주변의 흠집정리는 미처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래는 일단의 작업의 거의 완료된 9월 24일의 작업본입니다.

9월 24일의 작업본에서 보면, 사진의 외각부분들이 모두 말끔하게 복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에 보여지고 있는 우하귀 쪽의 2명의 인물은 원본에서 매우 희미한 이미지로 거의 구분되지 않는 인물이었으나,

정교한 보정작업을 통해 뚜렷한 이미지로 거듭 탄생되고 있음을 보게됩니다.

그 아래의 깨진 얼굴 이미지는 복원을 통해 과연 얼마나 달라진 것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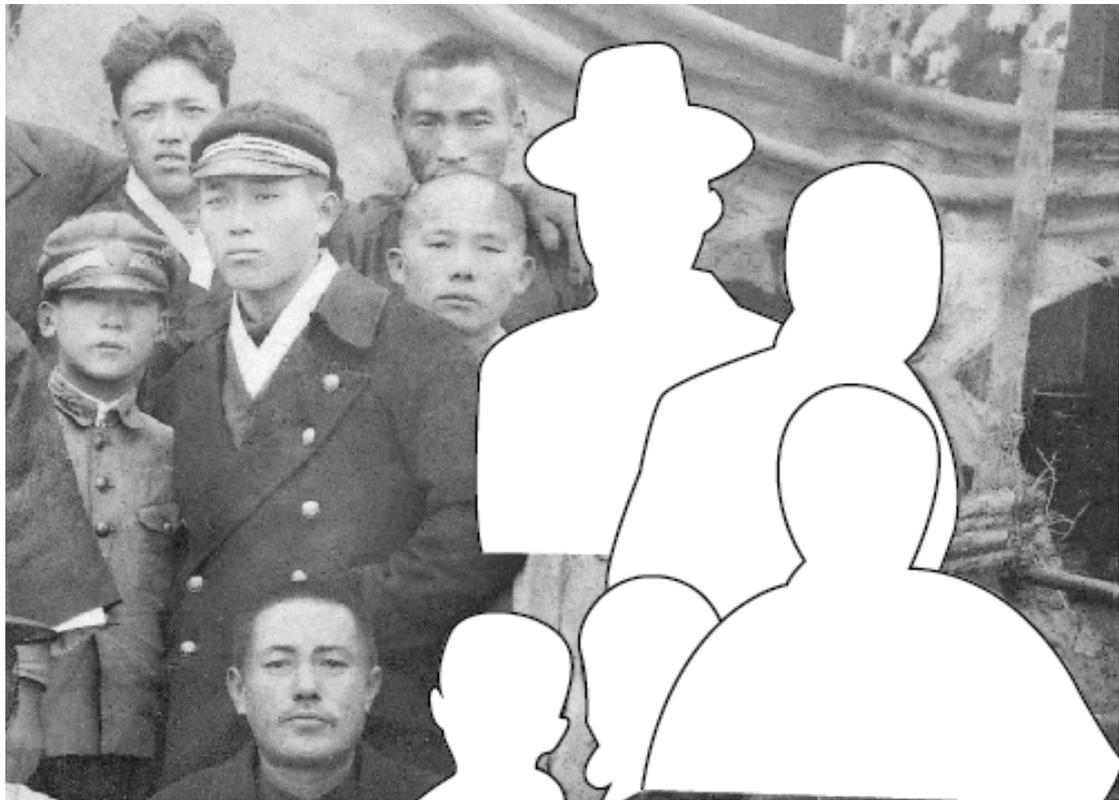
스크립터님께서는 9 월 27 일 완성이 되었으니 컨펌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더할 나위없는 고마움을 느꼈고, 더이상 요구할 게 없었으나 한 두가지 부탁을 더 하게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가족의 귀중한 유산

우선은 한 인물의 표정에서 조금 이상하게 복원된 점을 고쳐달라는 것이었고, 두번째는 가족들에게 사진들을 보내기 위해서 인물의 윤곽만 살린 이미지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인물들 중 살아계신분은 얼마 되지 않고, 따라서 그 인물들이 누구인지 후손들이 정확히 알기 어려워서 각 인물마다 번호를 매기고 그 인물에 대한 주석을 달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 이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사진 속의 인물들을 족보와 대조하여 1, 1-1, 1-2, 1-3 그리고 2, 2-1, 2-2, 2-3 이런 식으로 가계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기고 그것의 주석을 달아서 후손들이 앞서 살다간 분들의 모습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처리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고마운 스크립터님께서서는 이 작업까지 흔쾌히 수락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지면을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민간에서 70년 전의 사진이면 거의 최초의 사진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들고 올라오면서 삶의 무상성에 대해서 그저 왔다갈 뿐인 삶의 자취에 대해서 얼마간 저릿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느낌의 일부를 가족들에게 선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진의 복원과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가능케 해주신분들이 스크립터님을 비롯한 이 사이트의 고수님들입니다.
비교적 장황하게
진행의 과정을 밝히고, 그 느낌들에 대해서 부연한 것은
아무런 보상없이 작업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자는 뜻과
아울러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는 이 사이트에 대한 감사의 마음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서 이 좋은 가을의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